

재고도서 유통시스템은 꼭 필요하다

김성재 사장의 “재고도서 할인판매는 우리 모두를 결판낸다”에 대한 반론

한기호

창작과비평사 영업기획실장

해방후 출판세대를 크게 나누면 해방이후 창업한 제1세대, 70년대 중반 한글세대를 상대로 하여 한글전용, 가로쓰기 체제, 양장본에서 경장본(소프트본)으로의 전환 등을 이룬 제2세대, 90년대 초반 대중 독자들이 출현한 이후의 제3세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세대는 그야말로 오늘의 출판의 씨를 뿌린 분들이다. ‘독립운동하는 심장’으로 출판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전문인력을 충분히 양성하지 못하여 그분들이 창업한 출판사 거의 모두가 업계에 모범을 보일 만한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내로라하는 출판사들이 이미 폐업했거나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갔으며,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출판사도 1인 출판에 가까운 형태로 출판의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다.

제2세대에 의해 창업된 출판사들 중 일부는 여전히 왕성한 출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출판사가 펴낸 책들은 매출액 이상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제3세대 출판인들은 출판상업이란 명어를 싫어하기도 하였지만 연속적으로 베스트셀러를 내놓으며 출판산업을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산업으로 변화시키려 애쓰고 있다.

각 세대가 창업할 당시의 출판상황은 매우 다르다. 이제 50년 이상의 출판역사를 갖추었다면 출판업계 차원의 노후화가 축적되어야 하며 출판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사정은 어떤가? 말로 표현하기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 특히 해방 이후와 지금은 50년 이상의 시간적 거리가 있음에도 유통구조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변함이 없다. 부실한 출판사들이 합세하여 마구 쏟아내는 책들, 병목현상이 일어나 일주일 안되어 되돌아오는 반품들. 이 반품들의 물량이 급격히 늘어난 90년대 이후에는 우리 출판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반품 물량으로 병목현상

독자들이 책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변하였다. 문·사·철(문학·역사·철학)의 전통이 강한 우리 출판계는 글을 해독하는 능력을 배양해주는 책만을 진정한 책으로 취급해주는 풍토였다. 그러나 실용서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일시적 오락상품으로서의 책도 늘어났다. 책은 전통적인 교양습득의 도구로서만이 아니라 뉴미디어가 쏟아내는 과잉정보에 식상한 독자들이 확실한 정보를 찾는 정보의 원천이기도 하고, 일상생활이 주는

현재의 유통시스템은 간행되는 모든 책이 서점에 무한정 진열되고, 무한정 반품이 허용되고, 무한정 판매되기만을 기다리는 체제이다. 반품된 책 중에서 선별해 제2유통 시스템으로 판매할 수 있다면 무분별한 생산을 억제하고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책을 재유통시킬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

압박감에 벗어나 카타르시스를 가져다주는 오락상품으로서의 기능도 한다.

열악한 유통구조(도매상의 영세함, 서점수의 부족, 소매 매장의 협소함 등)와 독자욕구의 변화로 인하여 출판물의 수명 또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전국의 거의 모든 도매상이 출판사가 마구 쏟아내는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인하여 이미 도산했거나 도산의 길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변화에 우리 업계는 능동적인 대처는커녕 수수방관만 하

고 있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한 출판계 여론에 출판연구소가 이 문제를 주제로 포럼을 서둘러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날 포럼이 끝난 후 여러 출판사에서는 함께 창고를 둘러보고 기획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결정을 내리자는 공감대를 이루기도 하고, 자본력이 꽤 있는 업체를 비롯하여 여러 업체가 재고도서(어떤 용어로 부르든) 유통에 참여의사를 갖고 시장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그러나 지난해 《출판저널》에는 토론에 참석했던 한 원로출판인이 “재고도서 할인판매는 우리 모두를 결판낸다”는 제목으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필자의 주제발표가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문제제기 수준에 머문 것은 오로지 필자의 능력부족 탓이다. 이에 대한 지적에는 매우 감사드린다. 그러나 그분의 우리 출판계에 대한 애정은 믿어 의심치 않으나 변화된 현실에 대한 이해 없이 고답적인 발상에서 논의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좋은 책을 재유통시키는 방안

필자는 발표문에서 “재고도서에 대한 개념 정립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책이나 이 시장에서 유통시키면 유통상의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출판사들이 함량미달의 책이나 일과성의 책들을

자료

청소년 권장도서 선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권혁승)는 제27차 청소년 권장도서를 선정 발표했다. 문학 역사 정치 등 총11개 분야 35종의 도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문학: 《눈길》(이청준, 문학과지성사) 《그리운 것들은 산 뒤에 있다》(김용택, 창작과비평사) 《외계인》(황동규, 문학과지성사) 《두견이와 소쩍새》(이상욱, 시와시학사) 《끝없는 이야기》(미카엘 엔데, 문예출판사) ▲역사: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한국역사연구회, 청년사) 《일본을 걷는다》(김정동, 한양출판) 《서울의 문화유산 탐방

기》(서울학연구소, 숲과나무) ▲정치: 《토니 블레어》(존 소펠, 당대) ▲경제: 《열린 경제학》(이준구, 연암사) ▲경영: 《신바람 기업 문화》(이명환, 21세기북스) 《만화로 배우는 류광선의 창업입문》(류광선, 국일미디어) ▲사회: 《광기의 사회사》(김영진, 민음사) 《페미니즘, 무엇이 문제인가》(라마자노글루, 문예출판사) 《한국정보사회론》(최진석, 기한재) ▲철학: 《환경과 종교》(길희성 외, 민음사) 《90분 철학산책1-9》(폴 스트래던, 편연런북스) ▲과학: 《화석》(장순근, 대원사) 《숨겨진 과학의 역사》(로버트 실버스, 해냄) 《과학자들은 지금 무엇을 연구하고 있을까》

(김준민, 지성사) 《보이지 않는 권력자》(이재열, 사이언스북스) 《거짓말 잡아내기》(폴 에크만, 동인) ▲예술: 《내 마음 속의 그림》(이주현, 학교재) 《책 읽는 사람이 세계를 이끈다》(김영진, 웅진출판) 《나는 공부하러 박물관 간다》(이원복, 효형출판) 《검은대륙의 옥수수 추장》(김순권, 한송) 《마음을 비우는 지혜》(정민, 숲) 《128일 동안의 핀란드 이야기》(장석수 외, 아이비에스) ▲아동: 《사랑의 학교》(아미치스, 창작과비평사) 《지구사랑 환경이야기1-3》(장 피에르 기예, 다섯수레) 《단풍나라로 가는 배》(김혜리, 국민서관) 《날아라 뒷장잡자리야》(조성자, 사계절) 《아버지가 데려온 썩곰》(권영상, 대원사) 《소중한 우리것 재미난 우리얘기1-12》(우리누리, 중앙일보사)

제3회 「한국출판평론상」 공모

출판현상의 깊이있는 분석과 비평을 통해 출판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출판평론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제정된 「한국출판평론상」의 세번째 공모를 실시합니다. 한국 출판의 비전을 제시하는 역작을 기대하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응모 요강

1. 응모자격 : 제한 없음
2. 모집 분야 · 분량 · 상금

분 야	분 량	상 금
출판 정책 부문	200자×70매 내외	당선작 200만원
출판계 시평(時評) 부문	200자×70매 내외	당선작 200만원
신간 평론 부문	200자×30매 내외×2편	당선작 200만원

3. 응모 부문별 주제 (자유 주제)

- ① 출판 정책 부문
출판 관련 법규 · 정책의 개선방안, 한국 출판의 세계화 방안 등 정책진단과 제언.
- ② 출판계 시평(時評) 부문
출판물의 제작 · 유통, 출판경영, 출판환경 변화, 출판사 진단, 출판광고, 출판의 자유, 기타 각종 업계 현안 등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대안 제시.
- ③ 신간 평론 부문
출판물의 장르별 최근 동향 분석이나 주제별 신간 시평 (1997년 1월 이후에 초판이 발간된 저작을 대상으로 할 것)
※ 책 한 권에 대한 독후감 식의 서평은 제외함.

4. 원고마감 : 1997. 10. 31 (당일 소인 유효)
5. 보낼 곳 : (우편번호 110-190) 서울시 중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3층 한국출판연구소
문의 전화 : 739-9040, 737-7106

6. 심사위원 : 예심 및 본심 위원은 당선작 발표시 명단 공표
7. 당선작 발표 : 1997년 11월 20일경 당선자에게 개별 통보
8. 참고사항 : ① 각 부문의 주제는 자유롭게 택할 수 있음.
② 원고 맨 뒷면에 성명 (필명을 사용할 경우 본명을 밝힐 것),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전화번호를 명기할 것.
③ 겉봉투에는 응모부문 및 “한국출판평론상 응모원고”라고 붉은 펜으로 표기할 것.
④ 응모 원고는 여타 지면에 발표된 적이 없어야 함.
⑤ 당선작의 저작권은 3년간 본 연구소에 귀속됨.

주관 : (재)한국출판연구소
후원 : (재)한국출판금고

이주 험값으로 다시 재고도서 유통시스템에 출고해보았자 이는 비용낭비만 부추길 뿐이다. 쓰레기는 분명 쓰레기로 그냥 폐기되어야 마땅하며, 이에 원천적으로 생산되지 말아야 한다.

고급인력이 필요하고 나아가 '재고시장 공급도서 선정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두어야 한다고 한 것은 이들 쓰레기 수준의 책을 가려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용이 알차고 수준이 있는 책인데도 유통상의 불합리와 독자들의 기호변화로 폐기된다면 사정은 다르다.

자기가 정성들여 만든 책을 잘라버리는 것은 자식을 잃는 아픔과 같다.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그 책은 이 땅에 자취를 남겨놓고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반품된 책들이 약간의 결격사유 때문에 파지로 처분되는 경우도 많다. 이들 책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세워져야 한다. 필자가 주제발표를 한 취지도 여기에 있다. 그냥 몇푼의 푼돈이나 건지자고 유통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자고 나선 것은 아니다.

이런 책을 판매한다 해서 출판사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독자에게 해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재고도서 유통시스템이 이루어지면 가정에 있는 온갖 책들도 여기에 흘러들어올 것이다. 인건비의 상승, 토초세의 신설 등으로 고물상이 사라진 뒤에는 각 가정에 있던 책들은 그냥 파지로 팔려나가고 있다. 좋은 책들이 다시 독자와의 행복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꿈꾼 것이 다소 감상적인 발상이었다면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93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인당 연간 40권의 책을 구입하므로,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한 가정에 1년에 160권 이상의 책이 쌓이게 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버려지게 마련인 이들 책의 재활용을 생각해내어 창립된 체인이 '북오프(BOOK OFF)'이다. 이 체인이 최근 전국적으로 181개 점포로 늘어나고 매출도 95년 41억엔에서 96년 58억엔으로 급신장하고 있다. 이 체인의 성공담은 국내(조선일보 96.2.8)에도 소개된 바 있다.

또 일본은 "비재판본(非再販本: 일정기간 경과후 출판사의 의사에 의하여 재판가격본으로부터 제외된 출판물 등)의 유통에 관한

물을 확립하고 항시적으로 재판본을 유통시킬 필요"가 있다고 업계 차원에서 제기한 적도 있다. 일본 업계는 95년 동경 국제도서전 등에서 이들 책의 판매를 시험한 바 있다. (일본출판문화산업진흥재단, 《출판문화산업비전21》, 1995)

무분별한 생산을 막는 길

정가제가 무너지면 야기될 현상에 대해서는 필자도 다른 글에서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정가제의 붕괴에 대해서는 나도 절대 반대다. 그러나 재고도서 유통시스템의 등장이 곧 정가제의 파괴라는 것이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위협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지 않나 싶다.

일본의 경우, 고서점이 발달하고 '북오프'와 같은 업체가 갈수록 세를 얻어가고 있음에도 정가제는 무너지지 않았다. 정가제 하에서 출판물은 정가를 정한 뒤 수요 동향과 거래조건에 대응해 판매가격을 조절할 수 없다. 적절하게 가격전략을 전개할 수 없는 출판현실에서 재고도서 유통시스템이라도 체계화하는 것이 오히려 독자들을 가격파괴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다.

현재의 유통시스템은 간행되는 모든 책이 서점에 무한정 진열되고 무한정 반품이 허용되고 무한정 판매되기만을 기다리는 체제이다. 한글로만 출간된 책이 60만종이 넘어섰고, 현재 유통되는 종수만도 20만종이 넘는다. 서점들은 되도록 많은 책들을 진열하여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장 규모를 키워왔다.

그러나 매장키우기는 극히 일부 서점에서만 이루어져,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형서점과 일부 중형서점의 몰락을 초래하였다. 출판문화의 싹틔움과 같은 소형서점들의 몰락은 출판의 어려움을 불러왔다. 일정기간 판매한 다음 시장성이 급격히 떨어진 책은 반품되고 그 가운데 가치있는 책들을 선별해 제2유통 시스템으로 유통시키는 것이 분명 출판·서적계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이것만이 출판사들의 무분별한 생산을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점에 당대 독자들의 욕구를 최고로 충족시켜줄 책들로 진열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